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2. 25(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상북도, 철강산업 르네상스의 문을 열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초점 포항 산업 살리기에서 시작되는 경북 경제산업의 새바람 기대	미래융합 산업과	사진별첨
② 자연과 어우러진 경북의 누정(樓亭), '보물' 승격!! 전국 10개소 보물 승격 중 경북도 6개소 승격 쾌거 경북도 문화유산 위상 드높여	문화유산과	사진별첨
③ 2019년 경상북도 엠브이피(MVP) 공무원 선정 엠브이피(MVP) 2명, 투자유치실 장상열 사무관 원자력정책과 이미경 주무관 사책추진 유공 7명 과학기술정책과 권미선 주무관 농식품유통과 감승환 주무관 등	정책기획관	
④ 경북도, '20년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 18억원 확보 전년(3개소, 7억원) 대비 2배(5개소, 18억원) 이상 국비 확보	농식품유통과	
⑤ 취업을 위한 맞춤형 학숙, 경북학숙 2020년도 입학생 모집 내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 입학생 197명(남 56, 여 141)모집 '19년부터 전문대학 신입·재학생에게도 기회 제공, 취업역량강화 교육도 실시	교육정책관	사진별첨
⑥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 확대.. 시민의 경제적 부담 낮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산담당관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경상북도 최고장인 인증패' 수여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도정성과 및 2020년 도정방향' 브리핑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평가 보고회'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5(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			
		작성자	과장	조현애		
			팀장	윤태열	주무관	권경진
연락처	054-880-2463					

경상북도, 철강산업 르네상스의 문을 열다!

-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초점 -
- 포항 산업 살리기에서 시작되는 경북 경제산업의 새바람 기대 -

경상북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 요인들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포항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이하 ‘철강예타’)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조속히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예타 사업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약 6개월간 진행될 본예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전자산업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큰 축을 지탱해 온 철강산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심화, 제조업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철강산업이 미래형 기초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17년 5월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정부 대선공약 반영을 시작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수정 작업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가시적 성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당초 철강예타 사업은 정부 대선공약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예타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포항 지역에 국한된 연구개발 과제와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부각한 사업 논리만으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곧 평가와도 직결되어 그동안 과기부 기술성 평가 탈락이라는 결과를 계속 가져왔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금년 4월 5일 「국회철강포럼」에서 경북·전남·충남 등 전국 19개 기관이 상반기 추진전략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포항의 중심성과 허브 전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협력지역과 사업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당위성 확보는 물론 중앙부처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중점 보완하고,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전국의 산·학·연으로부터 기술수요가 높은 연구개발(R&D)과제 39건을 도출해 반영 했으며, 인프라 사업 조정 등 부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세부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기존의 기획보고서를 전면 수정하여 4/4분기 예타 재신청 했으며, 철강예타 사업은 산업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4/4분기 신청 14건 중 1위로 평가되어 부처 예타 순위 1번으로 과기부에 제출되어 이번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에게 기회마다 적극 건의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직접 챙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철강예타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제조업 패러다임 맞춰 철강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세부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획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체적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구조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세부과제가 발굴되었으며,

이를 통한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898억원(국비 2,027, 지방비 124, 민자 747)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은 크게 ①연구개발 및 ②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의 두 가지 카테고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①연구개발 부분은 ①-1)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①-2)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2개 분야에서, 6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과제당 50~90억원 내외의 금액으로 5년간 총 2,5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①-1)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은 분말기반 맞춤형 철강소재, 고특성 철강소재, 고강도 철강소재 가공기술, 후처리 기술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재물성 및 공정기술의 동반 향상을 통해 미래 신산업인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금형·공구강 등에 적합한 고부가·고기능 철강재 수요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을 중점 수행하게 되며,

①-2)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은 철강산업의 원료화 및 고순도화 공정기술, 산업간 응용기술 등 슬래그, 분진, 슬러지를 포함한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연계 제품화 기술개발을 주요내용으로 오염물질 저감 및 폐자원의 자원화 기술확보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제시된 연구개발(R&D) 과제들은 ‘중소철강사 육성을 통한 철

강생태계 강화' 라는 사업의 중점 목표를 고려하여, 다품종 맞춤형 소량생산 체제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기술로서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중소철강사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②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 부분은 발굴된 연구개발(R&D) 실증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기술데이터베이스(DB) 공유, 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효율적 성과확산을 목표로 3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실증을 위한 고압진공 아크 채용해 정련로 등 15종의 실증장비 구축과 지역 거점을 활용한 철강산업 집적지(포항·광양·당진) 중심의 공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체계 확립 및 기술자료 공유, 산업간 협의체 구축은 사업 성과확산 확산을 통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연결과 확대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부가 철강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시행착오 감소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단축 및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 중소철강사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향후, 철강예타 사업은 최대 6개월간에 걸쳐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본예타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화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수요변화에 대비한 철강 소재부품분야 기술 확보 및 중소철강사 중심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철강산업 구조고도화에 기여하고,

70여개 이상의 철강강소기업 육성과, 8,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4,000여개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철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업의 쌀이자 경북경제의 핵심 동력인 철강산업이 살아나야 포항이 살고, 포항이 살아야 경북의 경제와 산업이 되살아나기에, 철강예타 사업의 성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고 강조하며,

“아직 본예타 통과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말고, 지금까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타통과의 그 순간까지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다” 는 각오를 다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5(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성 자	과 장	임진걸			
			팀 장	조철래	주무관	권경숙	
		연락처	054-880-3168				

자연과 어우러진 경북의 누정(樓亭), ‘보물’ 승격!!

- 전국 10개소 보물 승격 중 경북도 6개소 승격 쾌거, 경북도 문화유산 위상 드높여 -

경상북도는 6건의 경북도 지정문화재가 보물을 승격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시도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연구를 통해 숨겨진 가치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370여 건의 누정 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1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종 10건의 누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규 지정했다. 그중 6건의 경북도 지정문화재가 보물로 승격되는 결실을 맺었다.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일컫는 말로,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과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속에서 여러 명 또는 혼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경주 귀래정은 전통건축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격적인 방식으로 육각형 평면에 대청, 방, 뒷마루, 벽장 등을 교묘하게 분할하였으며, 특이한 지붕형식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부 양식 등을 보여주고 있는 정자다. 육각형 평면형태의 누정도 경북궁 향원정(보물 제1761호), 존덕정(사적 제122호인 창덕궁에 있는 정자), 의상대(강원유형문화재 제48호)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어 희소가치가 크다.

김천 방초정은 영·정조 때 영남 노론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이의조가 1788년 중건하였다. 보통 누정은 자연의 경관 조망과 관찰자를 매개하기 위하여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지만 방초

정은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가변적인 구성을 가진 정자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안동 청원루는 경상도 지역에서 드물게 ‘ㄷ’자 평면구성을 띠는 매우 희귀한 정자형 별서(別墅) 건물이다. 17세기 향촌사회 유력 가문(서인 청서파의 영수 김상헌)의 건축형태를 엿볼 수 있는 시대성과 계층성이 반영된 연구자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동 체화정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창호 의장 등에서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우수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자의 전면에 연못과 세 개의 인공 섬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하여 조경사적인 가치도 높다.

청송 찬경루는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와 청송심씨 가문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관영 누각으로 중수기와 중건기, 상량문, 시문 등에 창건과 중건 과정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공사 기록이 잘 남아 있다. 밀양 영남루, 진주 축석루, 울산 태화루 등은 사찰 누각에서 성격이 변한 누각이지만 찬경루는 처음부터 객사의 부속 건물로 객사와 나란히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관영 누각으로 의미가 있다.

봉화 한수정은 안동권씨 판서공파 후손인 충재 권벌로부터 그의 아들 청암 권동보와 손자 석천 권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완성된 정자로 초창(1608년)에서 중창(1742년), 중수(1848년, 1880년)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 가치가 크다. 또한, 용연(龍淵)과 초연대(超然臺 정자와 연못사이에 있는 바위),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정원은 초창 이후 4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정(丁)’자형 평면구성과 가구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중 가치 있고 우수한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정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5(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작성자	기획관	정성현		
			팀장	윤상환	주무관	박승인
연락처	054-880-2134					

2019년 경상북도 엠브이피(MVP) 공무원 선정

- 엠브이피(MVP) 2명, 투자유치실 장상열 사무관, 원자력정책과 이미경 주무관 -
- 시책추진 유공 7명, 과학기술정책과 권미선 주무관, 농식품유통과 김수환 주무관 등 -

경상북도는 ‘변해야 산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기치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엠브이피(MVP) 2명과 시책유공 공무원 7명 등 총 9명을 ‘2019년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엠브이피(MVP) 공무원(남)으로 선정된 투자유치실 장상열 사무관은 도정역점 시책인 투자유치 분야에 공적이 인정되었으며, 특히 ‘엘지(LG)화학’을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5,000억, 1,000개 일자리)로 만들어 유치함으로써 구미 5공단 분양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또 한명의 엠브이피(MVP) 공무원(여)으로 원자력정책과 이미경 주무관은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및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큰 역할을 했으며,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 수립·추진과 더불어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원전해체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시책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된 과학기술정책과 권미선 주무관은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통과(국비1,313억),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농식품유통과 김수환 주무관은 혁신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 육성으로 마케팅 수익실적(5,191억)부분과 출하예약제를 통한 취약농가 농산물 판매부담 경감 등에 유공이 인

정되었다.

경북도서관 백종민 주무관은 경북도서관 기반을 마련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미래전략기획단 심인보 사무관은 지역발전투자 국비 공모사업 선정(국비 91억), 경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총괄추진(국비 986억), 메가 프로젝트 과제 발굴에 총괄적인 역할을 했다.

예산담당관 이원춘 사무관은 경상북도 개발공사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정금액을 신도시 내 공공용지 현물배당액으로 확보해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부지 확보에 기여했다.

인사과 이정하 주무관은 매주 화요일 아침 화공 굿모닝 특강 운영, 새바람경북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도청 직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로철도과 조현고 주무관은 2020년 국가지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국비 2조1,822억) 국비확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비타당성 면제(2건), 철도분야 도민숙원사업 및 국비예산 확보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번에 선정된 엠브이피(MVP)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포상금 각 5백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 한해 경상북도 공직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어서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많은 도정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면서 “내년도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19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선발

I. 2019년 선발 및 포상 계획

구 분	인원	시상내역	포상시기
MVP	2명 (남.여 각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표창 ▸ 시상금 500만원 	12월30일 (직원만남의날)
시책추진 유공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표창 ▸ 시상금 200만원 	실국별 자체전수

II. 선정자 명단(가나다 순)

구 분	직 급	성 명	비고
총9명 (MVP 2명, 시책추진유공 7명)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관	장상열	MVP
동해안전락산업국	원자력정책과	행정주사보	〃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전산주사	시책추진 유공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농업주사	〃
문화체육관광국	경북도서관	시설주사	〃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관	심인보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
자치행정국	인사과	행정주사	〃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시설주사	〃

※ 수상자 사진

				
MVP 행정5 장상열	MVP 행정7 이미경	시책유공 전산6 권미선	시책유공 농업6 김수환	시책유공 시설6 백종민
				
시책유공 행정5 심인보	시책유공 행정5 이원춘	시책유공 행정6 이정하	시책유공 시설6 조현고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5(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성 자	과 장	설 동 수			
			팀 장	김왕식	담당자	이기철	
		연 락 처	054-880-3344				

경북도, '20년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 18억원 확보

- 전년(3개소, 7억원) 대비 2배(5개소, 18억원) 이상 국비 확보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8억원(총사업비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직거래 공간으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다. 농가 레스토랑,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 시설을 갖춘 복합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거점 역할도 한다.

선정절차는 사업부지 확보, 입지조건 등 서면심사, 현장실사와 최종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전국 21개소(경북 5, 경기 1,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3, 전남7, 경남 1)를 선정했다. 이중 경북은 경주시 경주농협(5억원), 내남농협(2억원), 천북농협(3억원), 구미시(5억원), 영덕군(3억원) 5개소가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8억원을 지원받는다.

1년차 사업자인 내남농협, 천북농협은 직매장 100㎡ 이상 설치 및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며 2년차 사업자인 경주농협, 구미시, 영덕군은 1년차에는 설계 등을 실시하고 2년차에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등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한다.

한편, 경북도는 ‘19년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단위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농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 ”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5(수)】	담당부서	교육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배성길		
			팀장	이성구	주무관	이황희
		연락처	054-880-4563			

취업을 위한 맞춤형 학숙, 경북학숙 2020년도 입사생 모집

- 내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 입사생 197명(남 56, 여 141)모집 -
- '19년부터 전문대학 신입·재학생에게도 기회 제공, 취업역량강화 교육도 실시 -

경북도는 (재)경북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경북학숙의 2020년도 입사생 선발계획을 26일 도청 및 경북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197명(남학생 56, 여학생 141)으로, 입사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지가 경북도내로서, 경산시·대구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020. 1. 13(월) ~ 1. 22(수)까지이며,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시·군 교육협력업무 부서 및 경북학숙에서 실시하며, 합격자는 2. 7(금) 경북학숙 홈페이지(www.kydel.or.kr)를 통해 발표한다.

경북학숙은 경상북도가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건립한 대학생 기숙사로서 1998년 3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경북학숙 생활관 전면 리모델링 및 매트리스, 책상, 옷장 등 비품 교체를 완료했으며, 기숙사비 월 16만원으로 숙식 및 학숙 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타 학숙과 차별화된 경북학숙의 자랑인 ‘외국어특성화 교육’은 2007년부터 재사생의 영어회화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재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용 및 외국어회화능력시험 응시료 등 모든 비용은 학숙에서 부담한다.

배성길 경상북도 교육정책관은 “도내 대학이 밀집되어있는 경산에 위치한 경북학숙은 최신 시설에 저렴한 가격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학숙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북학숙 입사를 적극 추천한다” 며, 시군에서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학숙 관리과(053-850-9777)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5(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자	과장	박재구			
			팀장	이원춘	주무관	박경재	
		연락처	054-880-2178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 확대.. 시민의 경제적 부담 낮춰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을 축소한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중 사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면제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운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대여사업자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고 말했다.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씨씨 이상 2) 1,600씨씨 이상 3) 2,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 " 8/100 "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씨씨 이상 2) 1,600씨씨 이상 3) 2,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 4/100 " 6/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3. 기타허가 및 신고	가.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나.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지(전·답) 2) 산·임야, 잡종지 등	제공미터당 1,500원 시: 제공미터당 3,000원 읍·면: 제공미터당 1,500원
	다. 토석·사력 채취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라. 골프장 등록	제공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자치단체 전액출자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을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을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5/100

※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면 제 대 상(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p> <p>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 <p>바. 「민법」·「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p> <p>자. 종교단체</p>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p>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p> <p>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와 공동명의 자동차의 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p> <p>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관련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자</p> <p>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다.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p> <p>라. 주민 직영사업</p>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p>마.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바.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p> <p>사. 「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력 채취허가</p> <p>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임대는 동 지구 지정기간에 한한다)</p> <p>자.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p> <p>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차량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p> <p>카.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p> <p>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p> <p>파.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3. 한시 면제대상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p> <p>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한다.</p> <p>나. 하이브리드자동차: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p> <p>※ 비고: 감면기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p>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경상북도 최고장인 인증패’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6일(목) 오전 10시 도청 접견실에서 2019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 선정된 5명에 대하여 ‘최고장인 인증패’를 수여한다.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도정성과 및 2020년 도정방향’ 브리핑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6일(목) 오전 11시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도정성과 및 2020년 도정방향’ 기자 브리핑을 한다.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평가 보고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6일(목) 오후 2시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19년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평가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